

한국전력

## 韓電제31기 株總 安秉華사장 재선

한국전력은 지난 3월 12일 제31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1989년 公社체제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업을 공개한 후 3번째로 열린 이날 주주총회에서 安秉華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에는 대내외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위험예비물등의 난제를 극복하는 최선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회고하고 “올해에도 공급능력의 확충과 투자재원 조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1991년도 매출액 5조 7천 22억원, 당기순이익 7천 90억원의 결산을 승인하고 민간주 10% 정부주 1.5%의 현금배당을 의결했다.

그리고 임기만료된 安秉華사장을 재선임하고 감사에는 육근소장(육사 16기)출신의 李載泰감사를 선임했다.

## 發電所주변지역지원

### 총595개사업에 147억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1989년에 제정되어 전력사업의 여건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은 차질없이 시행되고있다.

그동안 電力事業은 양적, 질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으나 날로 증가하는 電力需要에 대처하여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존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은 물론, 신규발전소의 적기 건설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發電所건설 및 운영에 대해 지역개발 효과 보다는 생활근거지, 환경문제 등으로 모두가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부정적 시각을 불식하고 발전소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한전은 자금압박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약 120億원을 지역주민에게 지원하였다.

금년에는 60개 발전소 주변지역에 총 595개 사업에 대해 147億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소득증대사업은 133개 사업에 37억 8천만원, 공공시설사업은 317개 사업에 78억 1천 400만원, 육영사업 및 홍보사업은 145개 사업에 31억 2천 9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지원금은 한전이 141억원, 한국수자원공사가 6억원을 출연할 예정인데 년도별 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90년도		91년도		92년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소득증대	44	1,413	100	3,056	133	3,780
공공시설	209	7,864	333	6,325	317	7,814
육 영	135	1,469	151	1,640	145	2,381
홍 보	-	547	-	724	-	748
합 계	388	11,293	584	11,745	595	14,723

## '91년 電力생산비 1KWh에 28원10전

### '90년보다 1원89전싸게 생산

지난해 국내발전소가 1KWh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든 비용은 평균28원 10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0년의 29원99전에서 1원89전이 줄어든 것이다.

3월 24일 동자부에 따르면 발전원가가 가장 낮은 발전소는 원자력발전소로 90년 KWh당 23원75전에서 지난해에는 22원62전으로 1원13전 떨어졌으며 유연탄발전소는 25원14전을 기록했다.

특히 중유발전소의 발전원가는 유가 하락으로 90년 37원88전에서 지난해에는 27원84전으로 10원4전이나 떨어졌으며 LNG(액화천연가스)발전소는 40원

89전에서 37원44전으로 3원45전이나 감소했다.

무연탄발전소의 발전원가는 90년의 52원15전에서, 1원33전 줄어든 50원82전을 보였으나 국내 발전소중 발전원가가 가장 높았다.(한국일보)

이와같은 전력생산원가의 하락은 한국전력의 경영능률향상에 따른 좋은 결실로 평가되고 있다.

## (주) 유공가스

## 석유화학용LPG공급확대 회사, 장기성장 기반구축

지난 2월 26일 제7기 株總을 마친 (주)油公가스는 작년도에 경영합리화를 이루어 매출액 2천714억원(전년대비 23%증가)을 올리고 물량면에서는 11% 증가한 약 124만톤을 국내에 공급, 국내 총수입량의 49%를 충당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株總에서 徐孝重사장은 캐비닛 히터 사업의 핵심요소인 부탄용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첨단자동화 충전소를 성공적으로 건설·운영하여 이 사업을 정착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등 “2000년대 세계일류의 종합 가스전문회사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92년도에도 불리한 경제상황에 대비, 지속적으로 저렴한 LPG를 도입 공급하는데 전력과 석유화학용 LPG 공급의 확대 및 신규수요 개발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하였다. 이밖에 “유공가스는 전사원들이 가스기기사업을 확대하여 회사의 장기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날 주주총회는 김관치 관리담당 상무이사를 유임시키고 한홍우 감사 사임에 따라 사운진 감사를 새로이 선임하였다.

한국전력보수(주)

'91심사분석, '92사업계획  
사업소장회의 개최

한국전력보수주식회사는 지난 2월 28일 임원, 경영간부를 비롯한 처실장, 1차 사업소장 등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소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91목표관리 우수부서 및 사업소 포상과 張基玉사장의 훈시로 시작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회사경영실적에 대한 심사분석 보고와 각부처의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지시사항 등이 시달되어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 가도록 했다.

이어 '92 경영과제 발표 및 특강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특강은 서울대 김명언교수가 “創造代時代에 있어서의 經營革新”이란 주제강연으로 참석자들의 근무자세확립에 각오를 새롭게 했다.

끝으로 수화력, 원자력, 송변전 분야별로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주요사업계획에 따른 토의와 예방정비, 경상정비, 공기준수, 품질향상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폐회하였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확대보급  
陳稔동자부 장관에 보고

한국지역난방공사 朴潤明사장은 지난 1월 31일 陳稔 동자부장관에게 금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난방사업의 확대보급추진등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수도권 신도시 전체와 강남, 서초의 기존지역을 포함하여 총 16만 3천호의 아파트와 240개 빌딩에 120만

Gcal의 열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12월에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공공법인으로 출범하게 되었는데 현재 추진중인 설립절차와 함께 관계법령 개정 등이 마무리되면 전담기관으로서 지역난방사업의 보급확대가 원활히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보고에 따르면 지역난방은 熱源시스템, 배관망과 지역난방의 핵심기술을 비롯하여 기자재 등을 대부분 외국에 의존하고 있어 관련업체에 개발을 유도하고 기술지도를 통하여 앞으로 국산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영남권 LNG 사업추진  
2001년까지 단계적 추진

한국가스공사는 영남권 LNG(천연가스) 공급사업에 모두 3천 512억원을 투입하여 오는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기로 하였다.

지난 3월 3일 한국가스공사 李經植사장은 영남권 천연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에서 이와같이 밝혔는데 이날 설명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大田~大邱간 150km, 大邱~昌原간 232km 등 382km의 주배관 및 공급지관 72km의 시설공사를 오는 '99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大邱, 龜尾는 '95년 1월에, 蔚山, 釜山, 昌原, 馬山, 鎮海는 '96년 1월, 浦項, 慶州는 '98년 1월, 金海, 永川, 金泉은 2000년 1월에 각각 도시가스연료로서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된다.

이와관련 전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99년말까지 1조 9천억원을 들여 평택인수기지를 확장하고 인천인수기지를 새로 건설하며, 수도권, 중부권, 영호남권 및 남부권 모두 1천382km의 배관망을 단계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한국에너지 기술(研)

에너지절약 워크샵

11월 12일~13일 개최예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에서는 오는 11월 12일~13일 2일간에 걸쳐 에너지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미래 핵심기술 확보 주력

평가제도입 연구생산성향상

우리나라 유일의 종합연구소인 韓國 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올해 세계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그 기반을 굳혀나가고 있다.

KIST는 올해 ① 미래 전략산업분야의 원천핵심기술 개발 ② 전문연구소와 구별되는 한차원높은 종합복합연구 수행 ③ 국가차원의 연구기획관리 강화 ④ 學 研협동에 의한 고급과학기술인력양성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중점연구분야는 신소재 난치병치료제 등 환경복지기술, 고도정보기술, 센서등 감성공학기술, 차세대자동차등 복합기술 등으로 잡고 있다.

연구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종합연구소로서의 특성을 살릴수 있는 고유의 종합연구프로그램을 확대, 연구비 비중을 지금의 14%에서 절반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연구조직도 개편, 기존 11개부서를 3개연구단으로 묶고 연구실도 56개에서 35개로 줄이기로 했다.

또 연구의 질을 가장 중시하는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인사관리및 인센티브에 반영, 동기부여 방법을 강화하기로 했다.

KIST는 금년중 우수연구센터(Cen-

약에 관한 기술 및 응용사례 보급을 위해 제7회 워크샵을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 워크샵은 동력자원부의 지원사업으로 에너지절약기술의 보급 및 이용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산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의 에너지관련 전문가 약 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ter of Excellency)를 설치해 세계최고 수준의 과학자를 유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신규 분야를 개척함으로써 연구역량을 한차원 높일 계획도 세웠다.

또한 KIST는 독립국가연합(CIS)과의 협력등 국제공동연구를 강화하고 연구시설의 개선, 연구인력의 정예화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경제>

## 새美金 超薄膜 시스템 첨단 연구장비 시험가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지난 3월 20일 한국과 CIS(독립국가연합), 미국등 6개국 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첨단연구개발 장비로 제작한 복합박막합성 이온주입시스템의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이 연구장비는 기능재료설계연구실 金順光박사팀이 기본개념설계를 하고 러시아의 모스크바 공학물리연구소 기술진이 세부설계를 맡아 제작되었다.

특히 이 시스템에는 MEPI의 레이저 플라즈마 이온주입 및 증착기술을 비롯 미국의 이온빔스퍼터링과 초고진공 배기 기술, 영국의 진공분석기술, 일본, 프랑스의 진공부품, 우크라이나 일렉트론사의 진공실 및 레이저장치, 한국의 진공시스템등 다국적 기술이 함께 들어갔다.

이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얻을수 없었던 새로운 합금박막을 개발할 수 있게 된것이 특징이다.

이 워크샵에서는 산업계의 경험 및 개선사례와 연구기관의 최신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등 다양한 에너지절약 기술의 교류와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에너지관리공단

### 에너지 10%절감 캠페인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2월 18일 서울 6개지역과 전국 11개주요도시에서 전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에너지10%절약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와같은 캠페인은 지난해 국내에너지 소비량이 사상 처음으로 1억톤을 넘어서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대국으로 부상했으며 에너지 소비증가를 또한 11.6%로 경제성장을 8.6%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에너지 과소비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특히 정부는 연초에 에너지 10%절약운동을 산업·건물등 전분야에 걸쳐 실시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어 에너지관리공단은 최상화이사장을 비롯한 전임직원이 이에 발맞추어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 에너지 合理的 사용 유도

#### 체계적 홍보, 절약생활화

에너지관리공단은 1992년도 주요업무추진방안으로 에너지소비 증가 억제시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날로 늘어나는 에너지 소비증가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체계적인 홍보와 내실있는 교육으로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 공단은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 주력하여 에너지절약기반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지난 2월 8일 에너지관리공단 崔相和

또한 이 기간에 에너지절약기기 전시관을 마련하여 참가자들에게 국내 우수 에너지절약기기를 직접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사장은 陳稔 동차부장관에게 보고한 '92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이와같이 밝혔는데 금년도에는 에너지 10%절약에 앞장서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건물의 냉난방 온도 기준설정 이행의무화, 교육용 홍보관 설치,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에 경제적 운전기법 출제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사업을 선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대체에너지 기술 개발 및 실용화등을 적극 추진하여 개발 기술의 실용화와 보급확대에 주력하여 에너지 수요에 대비하고 절약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 現代엔지니어링

### 印尼컨설팅 용역 受注

#### 산업발전 계획기본자료제공

現代엔지니어링(株)은 인도네시아의 전력수요예측 컨설팅용역을 수주했다.

지난 3월 19일 現代엔지니어링은 인도네시아 전력청과 최근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전력 수요예측을 위한 컨설팅용역 계약을 50만달러에 맺었다고 밝혔다.

국내 민간엔지니어링 업체가 외국의 전력 수요예측 분야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現代엔지니어링은 이 지역 전력소비자 가격동향, 수요탄력성등을 분석하고 가정 및 산업체의 전력소비실태등을 조사하여 에너지절약대책과 전력수급 및 관리대책을 자문해주고 산업발전계획의 기본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한국전력기술(주)

社内 技術大學院

과기처의 認定書 취득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는 직원들의 자기개발 및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1983년부터 석사 및 학사대우과정의 사내기술대학원을 개설 운영해 왔다.

그런데 정부의 사내기술대학원 육성 지원책에 따라 지난 '91년 12월 17일자로 과학기술처로부터 한기기술대학 및 한기기술대학원 인정서를 취득하였다.

한기기술대학은 기계공학, 핵공학, 전기공학, 계측제어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전자계산학 등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92년 상반기중에 관리직 직원들을 위한 전공과목도 개설할 예정이다.

韓技「K-SPEC 2000」, 전문직 혁신운동 전개

한국전력기술(주)는 UR협상에 따른 기술용역개방에 대비하고, 2000년대를 향한 경영효율의 제고와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내기풍 조성을 위해 「K-SPEC 2000」으로 명명된 본격적인 경영쇄신작업에 착수했다.

2월하순 李宗勳사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K-SPEC 2000」선포식을 가진 韓技는 1차년도인 '92년을 「의식개혁 분위기조성 및 비전만들기 해」로 정하고 월1회 전담 매체를 발행하는 한편, ① 회의의 효율화 ② 원가의식 제고 ③ 보편문서량 줄이기 ④근무상황 보고서 운영방법 개선등 업무습관개혁 추진과 사내 25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미래토론회」를 운영, 사업영역 및 내부이념을 정립할 계획이다.

韓技의 「K-SPEC 2000」운동은 현재 민간기업을 주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생산직 중심의 운동에서 한차원 달리한

「전문직 혁신운동」으로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부가가치와 효율을 추구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의 변신을 위한 「노사가 합일된 공동운동」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36회 기술사시험에 韓技사원 10명 합격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실시한 제36회 기술사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한국전력기술(주) 사원 10명이 합격하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이로서 한전기술은 총 114명의 기술사를 보유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제36회 기술사 시험에서는 총 352명의 합격자 중에서 한기 핵공학 기술부의 박홍규과장이 영예의 수석을 차지하였다.

포항종합제철(주)

쾌적한 환경유지 선도 光陽製鐵에 환경처장관상

浦鐵의 광양제철소는 사내 환경보전에 주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환경보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공로로 환경처장관 표창을 받았다.

광양제철소는 완벽한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예방을 위해 광양 1기설비 준공이 전인 1987년에 최신예 배수 종말처리설비를 완공하여 공장준공과 동시에 가동하였으며, 1기설비부터 3기설비까지 총 설비 투자비의 11.1%에 해당하는 4천 254억원을 투입하여 각종 환경방지 시설을 설치 운영해 왔다.

또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관리와 청정연료의 사용, 배출수의 재활용 등으로 오염물질을 최소화함으로써 제철소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쾌적한 환경유지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와같은 사실은 감사원의 광주지방 환경청 감사당시 환경보전에 대한 광양제철소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가 밝혀져 환경처장관 표창을 받게 되었다.

全社 전자메일 시스템 통합 일원화 가동

포항종합제철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해오던 광양지역, 포항·서울지역 메일시스템을 통합, 일원화한 전자 메일시스템을 설치하였다.

이 시스템은 한번의 작동으로 전사에 설치한 600여대의 PC단말기를 상호 연결할 수 있어 12시간 이상 걸리던 지역간의 문서수발을 3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시스템 가동으로 컴퓨터가 문서 송수신현황을 자체 관리함으로써 수발신 내역이 자동적으로 기록되어 보존하게 된다.

포항제철은 1992년 3월말까지 이 업무를 확대하여 출자회사와 해외사무소까지 망라하는 메일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진행중인 화면결재 기능개발도 완료할 예정이다.

한국자원경제학회 초청세미나

포항제철은 지난 2월 13~14일 양일간에 걸쳐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원 일행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에너지자원 다소비업체로서 포항제철의 소비현황과 환경문제, 정부에너지 자원정책에 대한 상호관심사등을 토의하였다.

또한 산업체의 현안과제로서 전력난과 관련하여 발전설비 검사주기 연장안과 금년부터 실시기로 한 발전기 및 수전설비 검사제도의 비합리성에 대한 현장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토론했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회 고문인 李會晟 에너지경제연구원장과 고려대 경제과 郭相瓊교수도 참가하여 에너지센터, 환경감시센터 등을 시찰하는등 産·學·研이 합동으로 세미나에 참가하여 상호간의 유대를 공고히 하였다.

**(주) 油公**

**의욕적 '92년 經營戰略  
전년대비 11% 더 판다.**

주식회사 油公은 금년도 매출액목표를 작년대비 11% 증가한 4조5천억원으로 책정하는 '92년도 경영전략을 수립하였다.

유공은 지난 '91년에 제4정유시설 제2에틸렌생산시설 등 총 9개 신규공장을 준공하여 세계적 수준의 종합에너지·종합화학기업으로 면모를 갖추었는데 '92년에는 석유사업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한편 화학사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경영계획을 수립하였다.

油公은 이와 관련하여 석유사업부문에 3천4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하여 제4정유공정 등 신규설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경영효율을 개선하고 원가절감을 통해 석유업계의 「리더」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다진다는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油公은 화학사업에 1천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하여 정밀화학, 첨단신소재 등 고부가가치사업 개발에 힘써 '92년을 종합화학기업으로서의 원년을 삼을 계획이다.

그밖에도 석유개발사업에 1천억원, 유평유사업에 300억원, 연구개발에 300억원, 기타 투자 1천억원 등을 투입하여 세계수준의 종합에너지·종합화학 기업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방침이다.

**대한전기학회**

**'92국제전력전자심포지엄  
4월11일부터 사흘간 열어**

대한전기학회(회장 : 黃煥文)는 오는 4월 9일~11일까지 세라톤워커히호텔 컨벤션센터에서 '92년도 국제전력전자심포지엄(ISPE '92)를 연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전력과 전자분야에 관련된 논문 80편정도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일취월장하는 이 분야의 기술발전현황과 더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00여명의 이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함으로써 상황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 이번 심포지엄은 특히 선진국에서 미국, 일본, 독일등의 전문가들이 참여 학술발표를 하게 돼있어 크게 기대를 걸고있다.

한편 대한전기학회의 이번 심포지엄은 제13회 봄철 전력전자연구회의 학술발표회도 함께 열리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학술심포지엄으로서 많은 학술 및 기술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 기술연구원**

**154kv급 송전선로 自動감시  
디지털시스템 실용화**

한국전력기술연구원이 1백54kv송전선로의 이상유무를 자동으로 감시할 수 있는 송전선로 디지털보호계전시스템을 개발, 실용화했다.

연구원측은 이 시스템이 고장 또는 이상 발생때 이를 자동검출하고 고장부분을 분리시켜 사고의 파급을 막으며 고장 위치를 알아내는 기능도 갖고있어 사고복구 시간을 줄여준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전력선반송방식(전력선을 이용하여 통신하는 방식)과 달리 光통신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 그

동안 문제가 됐던 주변의 잠음신호에 의한 誤動作을 없앴다.

기술연구원측은 이 시스템중 고장위치 판정장치의 정밀도가 기존의 외국제품보다 뛰어나 기술적으로 우수성이 있다고 판단, 특허 출원키로 했다.

지난 88년부터 3년간 3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이 시스템의 실용화로 연간 1백억원가량의 외화절감이 기대된다고 기술연구원측은 분석했다.(한국경제)

**석탄가스發電 본격화**

**국내 첫 0.5t규모 爐기기제작 착수**

發電부문의 최첨단기술인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월 韓電기술연구원 발전연구실의 신에너지연구팀은 국내최초로 하루 0.5t규모의 噴流層석탄가스化爐의 설계를 마치고 기기제작에 나섰다 밝혔다.

석탄가스화는 휘발분이 많이 포함된 유연탄등을 석탄가스로 전환한뒤 정제하여 연료로 이용하는 기술이다. 석탄가스化爐로 복합발전을 할경우 전기생산효율이 40~45%로 기존의 微粉炭발전의 28~38%보다 무척높다. 또 대기오염의 주범인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및 석탄회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진의 양도 일본 등 선진국환경규제치의 10분의 1수준으로 아주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신대체에너지기술로 손꼽히고 있어 日本, 독일등이 90년대중반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중이다. 또 네덜란드는 내년말까지 2백50MW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아래 관련기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韓電 기술연구원측은 이번엔 착수한 하루 0.5t규모의 석탄가스化爐의 제작·실험을 거친후 94년에 50t규모로 爐를 확대시키고 2000년 이전에 실용화기술을 정착시킬 계획이다.(한국경제)